



## 국토해양부

수신자 (사)한국선주협회  
(경유)

제목 국제운수노련 및 인도선원노조 동향 통보

1. 국제해사탐-497(2008.12.23) 및 501(2008.12.24) 관련입니다.

2. 2009.2.16자 영국 로이드리스트지는 인도 선원노조와 국제운수노련이 연대하여 인도기항 한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출항을 지연시킬 계획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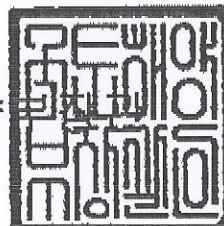
3. 동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첸나이, 뭄바이를 포함하여 콜카타, 코친, 칸드라, 망가로, 모무가오, 파라딤, 튜티코린, 비샤카파트남 등의 인도 항만에 기항하는 한국선박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

4. 이에 따라 우리부는 주한 인도대사관을 통해 인도정부에 인도 기항 우리 국적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.

5. 귀 협회에서는 국적선사에 관련 동향을 전달하여 주시고 인도기항 국적선박에 대한 인도 노조측의 부당한 대우 등 특이 동향 발생시에는 우리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청 부 : 로이드리스트 관련 기사 1부. 끝.

국토해양부



주무관

최희동

사무관

최성음

팀장

전결 02/17

권석창

협조자

시행 국제해사탐-272 (2009. 02. 17.) 접수

우 427-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(중앙동) 정부과천청사 4동 / <http://www.mltm.go.kr>

전화 02-2110-6390 전송 02-504-4076 / [inchd@mltm.go.kr](mailto:inchd@mltm.go.kr) / 대국민공개